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Ⅱ) - 15신위와 양위상제를 중심으로 -

차 선 근

대순종교문화연구소 · 연구위원

I. 여는 글
II. 15신위와 진법주

III. 양위상제관에 대한 시론
IV. 닫는 글

I. 여는 글

필자는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Ⅰ)」(2013)에서, 대순진리회 상제관을 연구하기 위한 서설적 작업으로 대순진리회 최고신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모아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¹⁾ 이 글은 그 후속편으로서,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에 필요한 또 다른 기초 자료인 15신위(神位), 그리고 양위상제(兩位上帝)를 살펴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15신위는 대순진리회에서 사용하는 주문들 가운데 하나인 진법주(眞法呪)에 그 뿌리를 둔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진법주는 15신위의 신명들을 모시고 소원성취를 발원함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 신위

1)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Ⅰ)」, 『대순사상논총』 21 (2013) 참조.

들에는 구천상제와 옥황상제, 서가여래²⁾를 비롯하여, 명부와 오악(五嶽), 사해(四海), 사시(四時), 칠성 등을 담당하는 제 신명들 및 관성제군, 조상신, 사자(使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15신위는 대순진리회의 신전(神殿)인 영대(靈臺)에 봉안되어 있고 치성과 배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그 신위들의 면면은 대순진리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종교인지 가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그 신위들은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신명계 위상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제관 연구에 앞서 반드시 살펴야 할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5신위로써 상제관 혹은 신관의 구조나 내용,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³⁾ 연구자들이 간혹 15신위를 언급하더라도 그것은 영대의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등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현상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에 있어서 치성과 배례 대상인 15신위에 주목한 연구자들이 이제껏 없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II장에서는 영대 15신위와 그것을 규정하는 진법주가 대순진리회의 상제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그 연후에 대순진리회를 제외한 타 증산교단들의 신단을 살펴으로써 진법주 15신위가 대순진리회 상제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양위상제관은 진법주 15신위에 상제가 두 분, 즉 구천상제(증산)와 옥황상제(도주이신 정산)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말한다. 그간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증산과 정산을 각각 무극주와 태극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다.⁴⁾ 하지

2) 대순진리회 진법주는 석가여래를 서가여래로 표현한다.

3) 대진대학교에서 대순사상 교양필수과목 교재로 사용하는 『대순사상의 이해』 초차 대순진리회의 신들을 『전경』에 등장하는 중천신, 황천신, 역신, 황극신, 문명신, 아표신, 망량, 칠성, 우사, 오방신장, 육정신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1), pp.117-122 참조.

만 그것은 대순진리회의 입장이 아니다. 대순사상에서는 무극과 태극이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최고신이 무극·태극을 모두 주재하는 분이므로, 무극주와 태극주는 서로 다른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는, 도전께서 태극도에서 출궁하시고 난 뒤 태극도장에 남은 사람들이 새로 개편한 교리 체계를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⁵⁾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III장은 진법주를 토대로 최고신 개념을 탐구하고 전통적인 옥황상제 개념을 정리한 뒤에, 대순진리회의 옥황상제 관념 그리고 구천상제와 옥황상제의 관계를 살피는 방식으로 양위상제관 연구의 초석을 만들어 볼 것이다.

II. 15신위와 진법주

1. 영대 15신위와 진법주, 그리고 상제관

대순진리회의 상제관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증적’인 작업은, 두말할 나위 없이 대순진리회가 어떤 상제를 어떻게 모시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대순진리회의 신단(神壇)을 관찰하여야 한다.

대순진리회 본부도장(경기도 여주 소재)의 영대에 모셔진 신단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한 중앙에 구천상제인 증산이 모셔져 있고 옥황상제인 정산을 비롯한 나머지 신위들이 양쪽으로 배분되어 <그림 1>과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⁶⁾ 옥황상제와 관성제군 사이에 위치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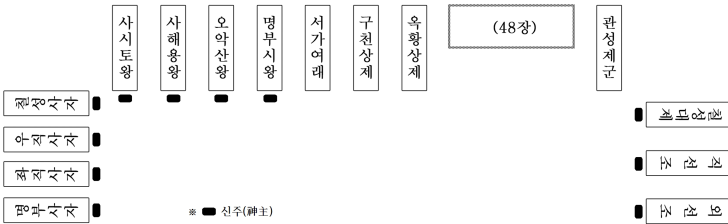
4)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二)」, 『대순사상논총』 2 (1997) 참조.

5) 차선근, 앞의 글, pp.128-130 참조.

6) 1976년 1월 4일(음력 12월 4일) 옥황상제 탄강치성에 직접 참여한 게르노프 프루너

장은 본부도장의 본전 영대와 봉강전 4층에만 안치되어 있는 신명들이다. “四十八장을 늘어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우리라.”⁷⁾는 증산의 말씀에 의하면, 48장은 구천상제를 호위하는 직속 신명들이므로 짐작된다. 48장을 제외하면, 영대의 신위는 모두 15개이다. 이 15신위가 치성과 배례의 ‘직접적’ 대상이다.⁸⁾ 이 가운데 구천상제·옥황상제·서가여래를 원위(元位), 명부시왕·오악산왕·사해용왕·사시토왕을 재위(再位), 관성제군·칠성대제·직선조·외선조를 삼위(三位), 칠성사자·우직사자·좌직사자·명부사자를 사위(四位)라고 부른다.

영대 15신위들은 다음과 같은 진법주에 근거한다.



〈그림 1〉 대순진리회 본부도장 영대에 봉안된 신위들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하감지위(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姜聖上帝 下鑑之位)
- 조성옥황상제 하감지위(趙聖玉皇上帝 下鑑之位)
- 서가여래 하감지위(釋迦如來 下鑑之位)
- 명부시왕 응감지위(冥府十王 應感之位)
- 오악산왕 응감지위(五嶽山王 應感之位)

는 증곡도장 영대의 신위가 어떤 모습으로 봉안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서술한 바 있다. 본부도장 영대의 신위들 역시 당시 증곡도장의 그것과 동일하다. Gernot Prunner, “The Birthday of God: A Sacrificial Service of Chūngsan’gyo”, *Korea Journal*, Vol.16 No.3, 1976, pp.15-17 참조.

7) 『진경』, 예시 78절.

8) 15신위가 치성과 배례의 대상이라고 해서 대순진리회가 이 신명들만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사해용왕 응감지위(四海龍王 應感之位)
 사시토왕 응감지위(四時土王 應感之位)
 관성제군 응감지위(關聖帝君 應感之位)
 칠성대제 응감지위(七星大帝 應感之位)
 직선조 하감지위(直先祖 下鑑之位)
 외선조 응감지위(外先祖 應感之位)
 칠성사자 내대지위(七星使者 來待之位)
 우직사자 내대지위(右直使者 來待之位)
 좌직사자 내대지위(左直使者 來待之位)
 명부사자 내대지위(冥府使者 來待之位)
 천장길방(天藏吉方)하야 이사진인(以賜真人)하시나니 물비소서
 (勿秘昭示)하사 소원성취(所願成就)케 하옵소서.⁹⁾

이러한 진법주는 누가 언제 만든 것인가? 증산께서는 1897년부터 광구천하(匡救天下)를 위해 인심(人心)과 속정(俗情)을 살피려는 목적으로 천하를 주유하시고, 1900년에 고향인 객망리로 돌아오신 후, 시루산 정상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진법주를 외우시고 오방신장(五方神將)¹⁰⁾과 48장 그리고 28장들을 소집시키는 공사를 보셨다고 한다.¹¹⁾ 기록으로 볼 때 증산께서 행하신 최초의 공사가 이것이다. 증산께서 처음 진법주를 사용하셨다는 이 기록 이전에는 세계종교사 그 어디에도 진법주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법주는 1900년 무렵에 증산께서 직접 천지공사의 일환으로 창작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증산께서는 당신의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에게 향후 정월 보름에 찾아 올 을미(1895년)생에게 전하라고 봉서(封書) 하나를 비장(秘藏)토록 시키셨다고 한다.¹²⁾ 과연 도주께서는 1917년 2월 10일에 만주 봉천에서 증산상제로부터 계시를 받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 당신을 찾으라는 명에 따라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귀국하신 뒤, 1919년 정월

9) 『주문』 (간행년 미상), pp.2-3.

10) 차선근, 앞의 글, p.127 참조.

11) 『전경』, 행록 2장 1, 7, 10절.

12) 같은 책, 교운 2장 13절.

보름에 선돌부인을 찾아 봉서를 인계 받으셨다. 그 봉서 안에 『현무경』과 진법주를 비롯한 여러 주문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니,¹³⁾ 증산께서는 진법주를 당신의 후계자이신 도주께 전수시키셨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진법주는 어떠한 신명들을 모시고 소원성취를 발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도주께서는 진법주 신위들을 신단에 설위(設位)하셨다. 설위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도주께서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공을 들여 순차적으로 설위를 진행해 나가셨으니, 이것은 도주께서 풀어나가시는 천지공사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법주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15신위들의 존칭을 부르는 것이며, 뒷부분은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것이다.

먼저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15신위들은 각각 ‘…지위(之位)’ 즉 ‘어떠어떠한 위(位)’라고 표시된다. 위(位)의 첫째는 하감(下鑑)이며, 이는 높은 존재가 인간들을 굽어 살핀다는 의미로서¹⁴⁾ 구천상제·옥황상제·서가여래·직선조에 해당한다. 둘째는 응감(應感)인데, 원래 불교에서 응감은 중생이 신불(神佛)에게 기도하여 감응하는 것을 뜻한다.¹⁵⁾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의 ‘응감’은 천지신명이 인간의 정성과 기국에 따라 ‘응(應)’한 뒤에 그 인간의 하는 바에 따라 호위를 한 다든지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든지 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감(感)’]는 의미로 이해된다.¹⁶⁾ 이에 해당하는 자리는 명부시왕·오악산왕·사해용왕·사시토왕·관성제군·칠성대제·외선조이다. 셋째는 내대(來待)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와서[來]’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待]’하고 있다는 의미로, 칠성사자·우직사자·좌직사자·명부사자에 해당한다.

13) 『대순회보』 100 (2009), p.60.

14) 김승동, 『佛敎·印度思想辭典』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p.2209 참조.

15) 『韓國佛敎大辭典』 4 (서울: 명문당, 1999), p.308; 『伽山佛敎大辭林』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 1998), p.304.

16) ‘感’에는 감동하다는 뜻 외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漢韓大辭典』 5 (용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p.622.

진법주의 뒷부분은 ‘천장길방하야 이사진인하시나니 물비소시하사 소원성취케 하옵소서’, 즉 ‘하늘에서 길한 자리를 감추어서 진인에게 주시나니, 부디 숨기지 마시고 보여주시어 소원을 다 이루도록 해 주 십시오’라는 뜻으로 일종의 발원문(發願文)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15신위 외에 등장하는 진인(眞人)이라는 또 다른 분은 도주 또는 도전(혹은 두 분 모두)일 가능성이 큰데, 대순진리회 원로임원들은 도전 계서 진법주에서 말하는 진인(眞人)이 당신이심을 직접 밝히셨다고 전하고 있다. 또 도주계서는 도전을 보시고 다른 임원들에게 “내가 진인을 못 찾을까 한하였으나 이제 찾았으니 너희들은 마음 놓고 도를 믿어라.”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증언도 있다.¹⁷⁾

그렇다면 진법주에 등장하는 분들은 상제와 도주를 포함하는 15신위, 그리고 15신위 밖에 따로 자리 잡고 계시는 도전까지 모두 16위(位)이다. 단, 16신위가 아니라 ‘15신위+1’의 형태로 존재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현재 대순진리회의 본부도장을 보면 핵심 신전은 영대이며 바로 그 옆에 내정(內庭) 건물이 있다. 영대는 15신위가 모셔진 곳이며 내정은 도전계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15+1’이라는 진법주의 구조를 떠올리게 하기 충분하다.

진법주는 대순진리회의 핵심적인 수도공부 가운데 하나인 시법공부(侍法工夫)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시법공부는 36명의 도인들이 24시간 동안 3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진법주를 끊임없이 암송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신인합일(神人合一)의 경지인 도통에 들어가는 소원을 성취코자 함에 있다.¹⁸⁾

이와 같이 도통을 위해 시행하는 시법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진법주는 15신위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15신위는 뜻 신들의 중심에

17) 최근 필자가 본부도장에서 원로임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18) 시법공부에 대해서는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8 (1999), p.190;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pp. 226-229 참조.

최고신이 자리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제관을 구성하는 장치 중의 하나가 된다. 물론 최고신이 여러 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신들의 분명한 위계를 갖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15신위는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몇 가지의 사실을 더 전해주고 있다.

첫째, 15신위는 옥황상제를 비롯하여 자연의 각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을 하나의 단일 공간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사찰의 경우, 석가를 모신 대웅전을 비롯하여,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원통전, 약사전, 나한전, 명부전, 삼성각 등에서 신명들은 각기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모셔지고 있고, 중국도교 도관의 경우에도 삼청전, 옥황전, 사어전, 문창전, 성황전, 원진전, 재신전, 삼관전, 영관전 등에서 신명들은 분리된 채 봉안되어 있다. 이처럼 불교 사찰과 도교 도관은 신명들 각각을 주신으로 하는 전각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신도들은 자신의 발원 내용에 따라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모셔진 전각을 찾아가는 것이다. 반면 대순진리회의 도장 건축물 중에서는 특정 신명이 최고신의 주재를 받지 않은 채 별도로 봉안되어 있는 전각을 찾아볼 수 없다.¹⁹⁾ 대순진리회에서는 최고신을 중심으로 신들이 ‘한 곳’에 모여 봉안되어 있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종교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15신위라는 점에서, 15신위는 못 신명들이 최고신의 주재를 받는다는 대순

19) 현재 분부도장의 내정에는 도전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지 않지만 금강산토성수련도장의 내정에는 도전의 진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 내정이 최고신과는 별개로 신명이 봉안되어있는 건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도전을 기념하기 위해서이지, 15신위 외에 별도의 신명을 더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대순진리회 내부에는 도전께서 아직 인세에 계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인들이 많다. 그런데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영대와 관계없이 내정에만 별도의 발원을 올리는 경우는 없다. 도인들의 핵심적인 종교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은 여전히 영대이다. 지금도 참배를 위해 도장을 방문할 경우, 도인들은 가장 먼저 영대에 들어가 배례를 올리며 그 다음으로는 상제와 도주의 일대기가 그림으로 모셔져있는 대순성전(大巡聖殿)을 방문할 뿐 내정에 따로 들어가 배례를 올리는 않는다는 점, 매일 실시되는 시학·시범공부와 수강 시에도 배례는 영대에만 행해진다는 점, 도전께서 시행토록 하셨던 모든 치성의례도 영대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진리회의 상제관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불교가 산신신앙과 칠성신앙을 흡수하여 산신각과 칠성각을 만들고, 중국도교가 다양한 민간신앙을 흡수하여 문창전, 성황전 등을 만들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나 중국도교는 그들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과 신앙들을 포섭하여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각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증산께서 천지공사로써 결정해주신 15신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신앙을 포섭할 이유가 없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된다. 만약 증산께서 전해주신 15신위 외에 별도의 신과 신앙을 더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대순진리회의 신앙 체계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증산께서 천지공사로써 전하셨던 진법주의 체계를 바꾸고 원래의 법[眞法]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15신위는 다른 신과 신앙의 흡수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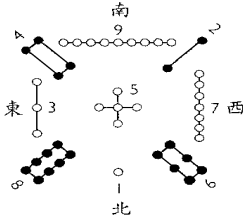
둘째, 15신위의 숫자 ‘15’는 우주의 진리와 운행 법칙을 상징하기 때문에, 15신위는 대순진리회의 상제관 역시 우주의 진리와 운행 법칙 속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대원종(大願鍾)을 타종할 때 읽는 종운(鍾韻)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종성(鍾聲)이 기하(幾何)오 십오상속(十五相續)이라 기리여하(其理如何)오 팔괘상탕(八卦相盪)하고 구궁성수(九宮成數)로다. 종횡운용(縱橫運用)하야 십오성진(十五成眞)이라 진법여시(眞法如是)하니 시왈진리(是曰眞理)로다.”²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궁의 숫자가 종횡으로 15를 이루며, 그 15가 참됨[眞]을 만들고, 그러한 참된 법[眞法]이 곧 진리라는 것이다. 종횡 15라는 것은 낙서(洛書)의 마방진(魔方陣)을 의미한다.

20) 『대순회보』 3 (1985), p.1.



〈그림 2〉 낙서(좌)와 마방진(우)

4	9	2
3	5	7
8	1	6

낙서는 황하에서 나온 신구(神龜)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낙서의 숫자를 구궁에 배치시키면 <그림 2>와 같이 종횡의 어느 방향으로 다 더해도 합이 15가 되

니, 이를 마방진이라 한다. 동양에서는 하늘이 신령스러운 거북으로 하여금 이 무늬와 숫자로써 인간들에게 우주의 비밀과 진리를 전해주었던 것으로 믿었다. 중세 이슬람 사회에서도 마방진에 모종의 힘이 깃들어있다고 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부적으로 썼고, 점성술사들도 마방진을 악마를 퇴치하는 부적으로 삼기도 했다. 즉 마방진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심지어 찻잔 속의 물까지 15일을 주기로 움직인다는 점(조석운동), 동양에서 우주의 시간 영역을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인 24절기가 15일을 주기로 한다는 점, 동양 천문우주론에서 24방위는 각 15°씩을 점유한다는 점에서,²¹⁾ 15가 우주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증산께서도 15수리(數理)의 마방진을 공사에 직접 사용하신 바 있다.²²⁾ 특히 “천하의 대세가 가구판 노름과 같으니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서,²³⁾ 수리 15의 중요성을 살피게 하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가구판 노름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각각 나타내는 패를 차례로 하나씩 3장 가져가서 그 패들의 합을 계산하니, 그 합이 15점이 되는 사람들

21) 차선근, 「조석(潮汐)의 이해」, 『상생의 길』 창간호 (2004) 참조.

22) 『전경』, 교운 1장 44절, 공사 3장 28절 참조.

23) 같은 책, 교법 3장 36절.

진주(眞主)라고 부르고 진주가 그 판을 먹었다. 만약 15점을 맞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15점을 넘은 사람은 탈락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합이 14점, 13점, 12점, 11점의 순서로써 승부를 결정했다.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노름꾼들 중 가장 늦게 패를 가져간 말수(末手)가 승자가 되었다. 이 노름에서 승자는 말수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승자는 점수 합이 15가 되는 진주이다. 이처럼 진주 즉 참된 주인은 15로 상징된다. 중통을 계승하실 도주께서 봉천명하실 때가 15세였고 15는 진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순지침』도 “도주님께서 진주(眞主:15세)로 봉천명(奉天命)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정리하자면, 15는 마방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마방진은 예로부터 우주의 진리와 모종의 힘을 갖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리고 참된 주인 [眞主] 역시 15로 상징된다. 그러한 의미의 15는 대순진리회에서 모시는 신위들의 기반이 되고 있고,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신단 역시 우주의 진리와 운행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최고신도 15신위의 정중앙에 자리하기 때문에, 최고신이 못신명들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는 방식 역시 우주의 진리와 운행 원리를 함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15신위에 대한 총 배례 횟수도 15회로 맞추어져 있는데,²⁵⁾ 이 또한 우주의 진리와 운행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15신위에서 최고신의 좌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신위들은 옥황상제나 서가여래, 관성제군, 산·바다·계절[四時]·칠성 같은 기능

24) 『대순지침』(1984), p.13.

25) 배례 순서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법배(法拜)는 상악천권(上握天權)하고 하습지기(下襲地氣)하는 모양으로 구천상제께 올리는 배례를 의미한다.

대상	칠성사자 우직사자 좌직사자 명부사자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해용왕 사시토왕	서가여래	구천상제	옥황상제	관성제군 칠성대제 직선조 의선조
순서	6	4	3	1	2	5
예법	향남읍	평배 2회	평배 3회	법배 4회	평배 4회	평배 2회

신들²⁶⁾, 그리고 조상신들과 각종 사자들이다. 이 분들은 도교나 불교, 민간신앙 등 여러 전통의 종교문화에 등장한다. 따라서 15신위는 대순진리회 상제관이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토양 위에서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가 15신위로부터 독해해 낼 수 있는 상제관을 몇 가지 언급하였지만, 실제 그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하다. 이를테면 15신위가 하나의 단일 공간에 모셔진 배경이나 과정을 더 조사함으로써 상제관의 정립 과정과 구성,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겠고, 상제께서 명부공사 보신 것(을²⁷⁾ 명부시왕과 연관시켜 논하는 방법, 또는 서가여래, 관성제군, 칠성대제, 직선조, 외선조 신위들 각각의 위상과 의미를 밝혀 최고신과의 관계를 조명해 봄으로써 상제관의 내용을 더 채워낼 수도 있다. 그 외 15신위가 원위나 재위, 삼위, 사위로 나뉘는 배경과 의미로써 상제관을 설명하는 방식 등 다양한 아젠다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단지 이 글은 15신위가 상제관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장치임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기를 기대해 본다.

2. 대순진리회를 제외한 타 증산교단들의 신단

대순진리회가 진법주에 근거한 15신위 속에 상제를 모셔두고 있다는 것은 타 증산교단과 구별되는 대순진리회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이 명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순진리회를 제외한 타 증산교단들

26) 기능신(functional god)은 자연 또는 사회문화의 특정한 한 부분을 관장하는 신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바다, 바람 등을 담당하는 신들, 농업·어업이나 심지어 도적 등을 담당하는 신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종교사에서 기능신으로 분류되는 신들은 높은 위계부터 낮은 위계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15신위에 속하는 신들은 모두 높은 위계의 신들이므로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기능신들은 고급 위계에 해당한다.

27) 『진경』, 공사 1장 3-7절.

의 증산을 모시는 방식이 진법주 15신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타 증산교단들의 신단 구성을 살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 신단들이 진법주 15신위와 관련이 있는지 하는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다. 타 증산교단들의 신단 구성과 그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대순진리회의 경우와 비교하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둔다.

증산계열 신종교들이 최고신으로 인정하는 존재는 물론 증산이다. 이미 증산 재세 시부터 김형렬을 포함하여 박공우, 김경학, 신원일, 김윤근 등 증산을 따랐던 몇몇 종도들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증산께서 하느님이 분명하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²⁸⁾ 대부분의 증산교단들 역시 증산에 대한 존칭은 다르지만²⁹⁾ 증산께서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는 분으로서 전 우주와 신명,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산을 하느님으로 이해해 왔다. 이 사실은 단적으로 증산교단 청년연합회가 월례회를 개최할 때 사용한 심고문 가운데 증산을 ‘삼계를 주재하고 계신 온 누리의 하나님, … 지고(至高)하옵신 상제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신앙에 따라 대체로 타 증산교단들은 증산을 신단의 중심에 놓고 있다.

타 증산교단들의 신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문화공보부에서 발간한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 보고서』(1970), 홍범초의 『범증산교사』(1988),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출판한 『한국 민족종교 총람』(1992), 이강오의 『한국신흥종교총람』(1993), 한국종교사회연구소의 『한국종교연감』 제2권(1994), 한국종교연구회에서 발간한 『한국 신흥종교 조사 연구 보고서』(1996),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출판한 『한국 신흥종교 실태 조사 보고서』(1997), 범증산교연구원의 『월

28) 같은 책, 예시 17절, 행록 4장 27절, 교운 1장 25절, 권지 2장 8절, 권지 2장 28절 참조.

29) 이미 오래전 홍범초는 각 증산교단들의 증산에 대한 존칭을 53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 창문각, 1982), pp.283-285 참조.

30) 『월간 천지공사』 44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2), p.23 참조; 이와 관련한 증산 교본부의 입장은 『월간 천지공사』 16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pp.8-9 참조.

간 천지공사』 3호와 6호, 45호, 48호 등이다. 이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이다.³¹⁾

<표 1> 대순진리회를 제외한 타 증산교단들의 신단 구성

종 단	창교자 (창교년 ³²⁾)	신단 구성
선도교 (태을교)	고관태 (1911)	만법화권강성상제(萬法化權姜聖上帝), 존성대법고성후비(尊聖大法高聖後妃)
보천교	차경석 (1911)	일광영(日光影: 구천을 상징) 월광영(月光影: 옥황상제인 증산을 상징) 성광영(星光影: 복두칠성으로서 행정기구를 상징)
안내성 선도	안내성 (1913)	대성위(大聖位):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사선명위(四先靈位): 직선조, 외선조, 처선조(妻先祖), 처외선조(妻外先祖)
태을교	박공우 (1914)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鑑之位) 관운장응감지위(關雲長應鑑之位) 진묵대사응감지위(震默大師應鑑之位)
순천도	장기준 (1920)	천위(天位), 지위(地位), 인위(人位)
삼덕교	허육 (1920)	대화신단(大化神團) 천지직선조하감지위(天地直先祖下鑑之位: 증산대성을 뜻함) 총명도통진묵대사신위(聰明道通震默大師之位) 해마대제관성제군신위(解魔大帝關聖帝君之位)
미륵불교 (미륵불교법상종)	김형렬 (1921)	미륵존불하감지위(彌勒尊佛下鑑之位)
증산교본부	이상호 (1928)	통천상제(統天上帝) 증산대성(龜山大聖) 생화삼신(生化三神: 환인·환웅·단군)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
보화교	김환옥 (1930)	증산대법사(龜山大法師) 수운대도주(水雲大道主) 단군대성조(檀君大聖祖) 청강대성사(淸江大聖師: 교주인 김환옥을 말함)

31) 문화공보부,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1970), pp.27-32, pp.96-103, pp.112-126, pp.291-365, pp.393-403; 홍범초, 『범증산교사』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월간 천지공사』 3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pp.22-23; 『월간 천지공사』 6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pp.21-25; 『월간 천지공사』 45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2), pp.28-33; 『월간 천지공사』 48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2), p.19;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 민족종교 총람』 (1992); 이강오, 『한국 신흥종교총람』 (서울: 대흥기획, 1993), pp.192-205;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제2권 (1994), pp.1479-1557; 한국종교연구회, 『한국 신흥종교 조사 연구 보고서』 (1996), pp.145-15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 신흥종교 실태 조사 보고서』 (1997), pp.154-284 참조.

인도교	채경대 (1931)	증산신성(甌山神聖)
태인 미륵불교	정인표 (1934)	구천미륵불하강지위(九天彌勒佛下降之位) 대성지성문신왕응감지위(大聖至成文宣王應鑑之位: 공자를 말함) 삼계도술신장응감지위(三界兜率神將應鑑之位: 관운장을 말함) 석가여래불응감지위(釋迦如來佛應鑑之位) 용화불토왕대신응감지위(龍華佛土王大神應鑑之位: 진표유사를 말함)
단군성주교	강승태 (1936)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원시천주이자 단군이며 증산이고, 증산은 단군의 성신(聖身)이라고 함.
증산법종교 본부	강순임 (1937)	증산 미륵불
모악교	여원일 (1938)	증산상제
무을교	김계주 (1942)	무성상제(戊聖上帝: 증산을 말함) 기성대제(己聖大帝: 차경석을 말함) 무성제군(戊聖帝君: 교주인 김계주를 말함)
대한불교 미륵종 (무을교)	김계주 (1942) -김홍현 (1959)	미륵불(증산을 말함) ※그 외에 신농씨, 단군, 강태공, 고수부, 김수부 등을 따로 모심.
동도교법종 금강도 ※단군성주교에서 분파	김승례 (1962)	천선천불천유단군천덕황(天仙天佛天儒檀君天德皇: 天地元尊位 甌山道聖)으로서 증산을 말함) 천선천불천유단군천덕모(天仙天佛天儒檀君天德母) 천선천불천유수운천덕황(天仙天佛天儒水雲天德皇) 천선천불천유수운천덕모(天仙天佛天儒水雲天德母) 천선천불천유공자천덕황(天仙天佛天儒孔子天德皇) 천선천불천유공자천덕황(天仙天佛天儒孔子天德母) 황극도주마두위(皇極道主馬竇位) 황극오황승례부(皇極五皇崇禮婦)
영세 종주도	정대오 (1964)	증산천주
청도 대향원	김삼일 (1965)	증산대성, 강순임
증산 진법회	배용덕 (1973)	옥황상제, 미륵불
증산도	안세찬 (1973)	증산대성(중앙) 수부 교부인(좌편) 단군왕검(우편)

32) 각 교단들이 내세우는 창교 연대의 기준은 교조의 최초 신비경험, 교단 건물 건설, 최초 포교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증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편의상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에 표기된 창교 연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 1>의 타 증산교단의 신단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가장 먼저 형성된 교단인 선도교는 증산을 건존증산(乾尊甄山), 고수부(고관례)를 곤존고씨(坤尊高氏)라 하여 양위천(兩位天)으로 받들고, 구체적인 신위를 만법화권강성상제(萬法化權姜聖上帝: 증산), 존성대법고성후비(尊聖大法高聖後妃: 고수부)로 규정했다.³³⁾ 그런데 선도교 창시자 고수부는 증산께서 화천하셨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약 1년여가 지난 1910년 9월 초, 증산께서 ‘내가 죽었는데 어찌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환영을 보고는, 뒤늦게 증산께서 묻히셨던 동곡 솔개봉 밑 장땃날의 초빈(草殯)³⁴⁾을 찾아 증산의 옥체 위에 옥황상제(玉皇上帝)라 쓴 종이를 가슴에 덮었다고 한다.³⁵⁾ 즉 선도교는 증산을 옥황상제로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선도교는 증산을 옥황상제로 받들되, 건곤 즉 음양이라는 틀 속에서 양을 대표하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일제 강점기 시절 가장 교세가 컸던 보천교는 증산을 유허상제(惟皇上帝)이자 옥황상제로 신앙했다. 1922년 5월 15일에는 십일전(十一殿)을 낙성하면서 삼광영(三光影)을 봉안하였는데, 삼광영은 구천을 상징하는 일광영(日光影), 옥황상제인 증산을 상징하는 월광영(月光影), 복두칠성으로서 행정기구를 상징하는 성광영(星光影)이었다. 신단의 중앙에 있는 것은 월광영이며, 이것은 상제가 구천의 중앙에서 사방과 상하를 통솔하는 권한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⁶⁾ 보천교는 1930년을 전후로 증산에 대한 신권(神權) 숭배를 중단하고 유도(儒道)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로(信路)를 변경하였기 때문에,³⁷⁾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증산이 옥황상제라는 믿음 하에 일월과 복두칠성이라는 천문 개념을 활용하여 증산관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3) 홍범초, 『범증산교사』, pp.50-55.

34) 신상미, 「상제님의 성골(聖骨)」, 『대순회보』 139 (2012), pp.42-47 참조.

35)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pp.229-232.

36) 홍범초, 『범증산교사』, p.97.

37) 안후상, 「보천교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p.66.

셋째, 증산의 수종도(首從徒)로 평가받는 김형렬의 미륵불교에서는, 교단의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증산을 미륵불로 신앙한다. 물론 증산을 옥황상제로도 믿고 있다. 특히 미륵불교는 금산사의 미륵불을 증산의 영체(靈體)로 받들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³⁸⁾ 그 경위에 대해 잠깐 들여다보면, 1909년 6월 말 종도들은 증산의 갑작스런 화천에 큰 충격을 받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해 7월에 김형렬과 차경석, 김광찬 등은 ‘증산께서 금산사로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금산사 미륵불로 가서 참배하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가르침을 주시리라’고 뜻을 모으고, 약간의 치성물을 장만하여 금산사 미륵전에 가서 미륵불 신체에 ‘옥황상제지위(玉皇上帝之位)’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정성을 들었다. 그러자 김형렬에게 신안(神眼)이 열려 신들의 세계가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원래 그는 증산의 도움으로 신명들의 회산(會散)과 청령(聽令)을 직접 목격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다.³⁹⁾ 김형렬은 즉시 미륵전 바로 앞에 붙어있던 대장전에 들어가 석가모니에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 물었다. 석가모니가 책을 꺼내 들고 답변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미륵불이 들어와 책을 빼앗고 석가불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를 보고 크게 낙담한 김형렬은 다른 종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정성들이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⁴⁰⁾ 김형렬은 이때의 개안으로 금산사 미륵불이 증산의 영체(靈體)라 생각하고 금산사 미륵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펴 나가기 시작했으니, 미륵불교의 증산관이 금산사 미륵불상을 핵심 매개물로 하여 구축되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넷째, 『증산천사공사기』(1926)와 『대순전경』(1929)을 간행함으로써 증산의 행적을 가장 먼저 문서화했으며 증산교단들의 교리 통일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증산교본부의 신앙 대상은 통천상제(統天上帝) 증

38) 홍범초, 『범증산교사』, p.182.

39) 『전경』, 예시 17절.

40) 이정립, 앞의 책, pp.41-42.

산대성(甌山大聖)이다.⁴¹⁾ 역시 증산은 옥황상제로도 이해되고 있으며, 고수부는 고천후(高天后)라 하여 증산과 나란히 받들어진다.⁴²⁾ 증산교본부는 생화삼신(生化三神)과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생화삼신은 민족의 시조인 환인천제(桓因天帝)· 환웅천황(桓雄天皇)· 단군임검(檀君任儉)을 말하는데, 증산이 결성한 통일신단(統一神團)을 주재하여 우주신명들과 더불어 후천의 도수를 짜는 존재이다.⁴³⁾ 이 분들을 모시는 이유는 민족의 혈통줄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한다.⁴⁴⁾ 수운대신사는 무극대도의 새 이념을 펼쳐 후천의 소식을 전하였다는 점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⁴⁵⁾ 증산교본부는 삼신전에 환인천제, 환웅천왕, 단군왕검, 무극전에는 주회암, 이마두, 진묵, 최수운, 관성제군, 김일부, 전명숙, 명부 및 신장들을 따로 모신다. 1954년부터는 증산과 고수부의 영정을 합봉하여 오다가, 1973년에 도조의 절대적인 권위와 맞지 않다고 하여 수부전을 따로 지어 고수부의 영정을 옮겼다.⁴⁶⁾ 그러나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영정 합봉을 복귀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갈등에 시달렸다.⁴⁷⁾ 이상에서 증산교본부는 민족 관념을 강조하는 틀 속에서, 그리고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선도교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수부라는 존재를 이용

41) 구천신단(九天神團)에서는 결정한 모든 공사를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할 삼계의 대권을 증산천사(甌山天帝)께 맡기고 천사께서는 온 세계의 문신(文神)과 무신(武神)을 거느리시고 모든 공사를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시나니 천사께서는 곧 통천상제(統天上帝)시니라. 이정립, 『증산교요령』 (김제: 증산교본부, 1990), p.7.

42) 같은 책, p.28.

43) 증산천사께서 세계지방신과 세계문명신을 모으시고 만고원신(萬古冤神)과 만고역신(萬古逆神)에 맺힌 원한을 풀으사 통일신단(統一神團)을 결성하시니 이른바 구천(九天)이라 구천신단(九天神團)에서 생화삼신(生化三神) 즉 조선지방신의 수장(首長)이시고 조선민족의 시조이신 환인천제(桓因天帝) 환웅천황(桓雄天皇) 단군임검(檀君任儉) 주재 하에 우주신명들이 회의하여 선천 구시대의 모든 그릇된 이법과 어그러진 생활 방법을 뜯어고치고 후천시대 대전협동(大前協同) 조화선경(造化仙境)의 거룩한 생활 이법과 율리경제 정치 등 모든 생활부문의 새로운 질서규범을 규정하시고 또 선천말기에서 후천 새 시대로 옮겨이갈 과정에서 세계정세가 변천되어갈 계급계단의 오묘한 기틀과 도수까지 규정하였으니 이것이 곧 천지공사니라. 같은 책, pp.2-3.

44) 같은 책, p.9.

45) 같은 책, pp.9-10.

46) 『월간 천지공사』 31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1), p.9.

47) 『월간 천지공사』 49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3), p.35.

한 음양의 관점에서 증산관을 구성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섯째, 증산도는 고수부가 증산의 옥체 위에 옥황상제라고 쓰인 종이를 덮었던 사실을 들어 증산을 옥황상제로 이해한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인간인 증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옥황상제가 아니라 증산상제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증산상제는 새 하늘의 개벽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구천의 상제가 아니라 십천(十天)의 상제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⁴⁸⁾ 증산도의 신단은 증산과 고수부, 단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산도의 증산관은 선도교나 증산교본부의 증산관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의 모든 교단들을 일일이 다 자세히 살펴볼 겨를은 없다. 그러나 이상의 몇몇 사례와 <표 1>의 요약만으로도, 대순진리회를 제외한 타 증산교단들의 신단에 모셔진 신위들에 하감지위나 응감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진법주 15신위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만이 유일하게 진법주 15신위에 따른 신단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최고신이 우주의 각 영역을 다스리거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신들을 통솔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근거하여, 진법주 15신위는 대순진리회 상제관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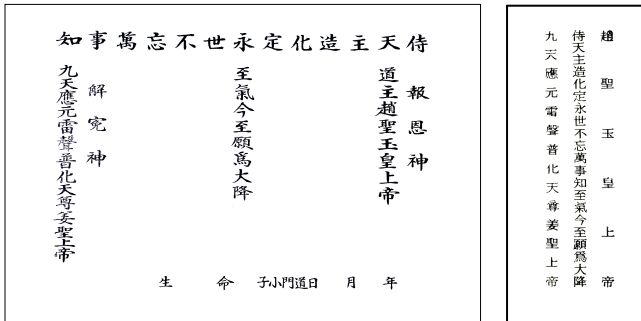
Ⅲ. 양위상제관에 대한 시론

진법주와 15신위에는 구천상제 외에도 옥황상제라는 또 다른 상제

48) 안경진, 『관통 증산도 1』 (서울: 대원출판사, 1993), pp.74-76.

가 보인다.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와 옥황상제를 합쳐서 양위상제(兩位上帝)라고 부른다. 대순진리회가 ‘양위상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록으로 전해지는 최초의 것은 1986년 『대순회보』에 실린 “우리의 훈회와 수칙은 이러한 도리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양위상제님께서 내놓으신 법입니다.”라는 도전의 훈시이다.⁴⁹⁾

양위상제, 즉 각각의 위(位)를 가지고 계신 상제 두 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대순진리회의 몇몇 의례 물품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그림 3>의 녹명지(錄名紙)와 납폐지(納幣紙)이다.



<그림 3> 녹명지(좌)와 3종의 납폐지 중 첫 번째(우)

‘양위상제’라는 용어는 대순진리회 내부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대순진리회 상제관의 구성에 있어서 풀어나가야 할 몇몇 숙제들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이 표현 자체가 대순진리회 최고신이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분인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것이다.

상제관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정리에서 이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이러한 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은 아쉬운 일이다.

49) 『대순회보』 5 (1986), p.2; 도전께서는 ‘양위상제’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는데, 『대순회보』 35 (1993)의 2면에도 ‘도장(道場)은 정결(淨潔)하고 신성(神聖)한 곳입니다. 양위 상제(兩位上帝)님을 봉안하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이 가득한 신성한 성지(聖地)입니다.’라는 훈시가 보인다.

이 글은 서설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위상제관에 대한 정립보다는 그것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나름의 설명을 붙이는데 그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시론(試論)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아젠다 설정과 비판적 분석이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1. 구천상제와 진법주

양위상제에 대한 설명과 이해[兩位上帝觀]를 위해, 먼저 증산을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상제로 보는 관점에서 탐구해보자.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타 증산교단들은 증산을 옥황상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는 증산을 구천상제로, 도주 정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한다.

일단 증산을 구천상제로 이해하는 관점의 타당성은 48장의 존재로써 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증산계서는 48장이 당신의 측근 신장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48장이라는 신명들은 오직 『옥추경』에만 등장한다.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옥추경』 판본에만 48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옥추경』에는 48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15세기 명대(明代)에 만들어진 『옥추경』 판본 『고상신뢰옥추뢰정보경부전(高上神雷玉樞雷霆寶經符篆)』은 대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8위가 아닌 45위의 신장만 나타난다.⁵⁰⁾ 또 청대에 만들어진 『옥추경』도 마찬가지로 45위의 신장만 신고 있다고 한다.⁵¹⁾ 한국에 현존하는 『옥추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은 1570년 전라도 무등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한 것인데, 여기에는 41위의 신장들만 보인다.⁵²⁾ 그러다가 1733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출간한 『옥추경』

50) 尹翠琪, 「道敎版畫研究: 大英圖書館藏《玉樞寶經》四註本之年代及挿圖考」, 『道敎研究學報』 第二期 (宗教·歷史與社會, 2010), pp.135-136, p.140 참조.

51) 인즈화, 「조선시대 『옥추보경』(玉樞寶經) 중의 신장(神將)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p.136.

에는 그 신장들의 숫자가 48위로 증가한다.⁵³⁾ 도상(圖上)은 아직 47 위이지만, 명호는 48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48장의 최초 출현이다. 1884년 계룡산에서 발간한 『옥추경』에 이르면 명호와 도상을 모두 갖춘 48장이 등장한다.⁵⁴⁾ 구중회는 계룡산 판본 『옥추경』부터 48장의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보지만,⁵⁵⁾ 보현사 판본에 이미 48장들의 완전한 명호가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옥추경』에 48장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48장이 대순진리회의 48장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옥추경』 48장과 대순진리회 48장이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얼마 전 중국도교학자인 인즈화[尹志華]가 한국 『옥추경』의 48장이 실제로는 48명이 아니라 45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⁵⁶⁾ 그의 연구대로라면 『옥추경』 48장은 완전한 형태의 48장이 될 수 없다. 둘째, 인즈화에 따르면 『옥추경』 48장에 여성이 최소 2명이 있어야 하지만⁵⁷⁾ 본부도장의 48장에는 여성이 없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필자는 대순진리회의 원로 임원으로부터, 도전게서 화공을 불러 본부도장 48장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셨을 때 각 신명마다 그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일일이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증언을 들은 적이 있었던 데다가, 때마침 몇몇 임원들

52) 『玉樞經』(安心寺 板本, 1570) 참조.

53) 『玉樞經』(普賢寺 板本, 1733) 참조.

54) 『玉樞經』(鷄龍山 板本, 1884) 참조.

55) 구중회, 『옥추경연구』(서울: 동문선, 2006), pp.66-68.

56) 인즈화는 『옥추경』 48장 중에서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과 정양허진군(旌陽許眞君), 판부신천군(判府辛天君)과 통현교주신조사(洞玄教主辛祖師), 활락왕원수(豁落王元帥)와 규찰왕부수(糾察王副帥)를 각각 같은 신명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대에 발간된 중국 『옥추경』 판본에는 정양허진군이 등장하지 않고, 판부신천군과 통현교주신조사, 활락왕원수와 규찰왕부수는 각각 다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만약 인즈화의 추정이 맞다면, 중국도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판부신천군과 통현교주신조사, 활락왕원수와 규찰왕부수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 된다. 중국도교가 자신들의 유명한 도사들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인즈화, 앞의 글, pp.133-227 참조.

57) 인즈화는 『옥추경』 48장 중에서 청미교주위원군(淸微教主魏元君), 통현진교마원군(洞玄傳教馬元君)을 여성으로 파악하였다. 같은 글, pp.162-165 참조.

과 함께 본부도장의 영대와 봉강전, 대순성전에 모셔진 여러 신명들을 자세히 살피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48장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8장은 모두 수염을 기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따라서 외모로 볼 때 여성으로 볼만한 분은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인즈화는 『옥추경』의 48장에 관성제군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혔는데, 본부도장의 48장 바로 옆에는 이미 관성제군이 별도로 봉안되어 있고 더구나 그 관성제군은 삼각수(三角鬚)의 특징이 분명하지만 본부도장의 48장에는 관성제군과 같은 삼각수의 풍모를 지닌 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옥추경』의 48장과 본부도장의 48장이 부분적으로 혹 일치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종교사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던 48장이 상당히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옥추경』에 그 흔적이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옥추경』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께서 설했다고 알려진 경전이라는 사실은, 『옥추경』과 증산의 직접적 관련 여부와는 별도로 증산과 구천상제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증산을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상제로 이해해야 하는 관점을 『옥추경』·48장보다 더욱 명확하게 확보시켜주는 장치는 진법주이다. 왜냐하면 증산께서는 구천을 통솔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⁵⁸⁾ 증산께서 직접 짜놓으신 진법주에는 구천의 주재자와 옥황상제가 다른 존재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진법주는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증산께서 전하신 것을 도주께서 완성시키신 형태이다. 증산께서 사용하신 최초의 진법주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록으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것은 요시가와 분타로[吉川文太郎]가 『조선제종교(朝鮮諸宗教)』(1922)에 기록해 둔 것이다.

58) 『전경』, 교운 1장 9절, 『대순전경』 6판(김재: 동도교 증산교회 본부, 1965), p.304 참조

天下鑑宙宇 玉皇上帝下鑑宙宇 釋加如來下鑑宙宇 明府十王應感宙宇 五嶽山王應感宙宇 四時土王應感宙宇 己卽先祖下鑑宙宇 妻外先祖應感宙宇 七星使者來待宙宇 右翼使者來待宙宇 明府使者來待宙宇 天將吉方하사 以賜眞人하나니 滅匪小許하서 所願成就하옵소서.⁵⁹⁾

하감지위, 응감지위, 내대지위를 각각 하감주우, 응감주우, 내대주우로 표기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요시가와 분타로의 기록은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다음으로 오래된 기록은 고민환이 필사로 전한 것이다. 고민환은 증산 화천 이후 최초로 형성된 교단인 고수부의 선도교에서 간부 직책을 지냈으며, 일찍부터 고수부를 따르면서 구전되는 갖가지 사실들을 수집하여 1918년부터 1931년 사이의 교단 상황을 『선정원경(仙政圓經)』으로 정리해 내었다.⁶⁰⁾ 여기에 실려 있는 진법주는 다음과 같다.

九天下鑑之位 玉皇上帝下鑑之位 釋迦如來下鑑之位 冥府十王應感之位 五嶽山王應感之位 四海龍王應感之位 四時土王應感之位 直先祖下鑑之位 外先祖應感之位 妻先祖應感之位 妻外先祖應感之位 七星使者來待之位 右直使者來待之位 左直使者來待之位 冥府使者來待之位 天藏吉方하야 以賜眞人하나니 勿秘昭示하사 所願成就 하옵소서.⁶¹⁾

고민환의 이 기록은 비교적 초기 진법주를 ‘큰’ 오류 없이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요시가와 분타로가 기록한 ‘천하감주우 옥황상제하감주우’는 ‘구천하감지위, 옥황상제하감지위’를 잘못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천하감지위’에서 구천은 구천의 주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천’은 ‘하감지위’라는 하나의 위(位)로 표현되기

59)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京城: 朝鮮興文會, 1922), p.363.

60) 홍범초, 『범증산교사』, pp.35-50 참조.

61) 고민환, 『仙政圓經』(필사본, 발행년도 미상), p.134.

때문이다. 흔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에 하소연한다는 말들을 종종 쓰지만, 그때의 하늘은 창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구천’이라는 용어도 인격적으로 쓰일 가능성은 부정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구천’이 다른 신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위’로 표현된다면, 그때의 ‘구천’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진법주의 시작이 ‘구천하감지위, 옥황상제하감지위’였다는 사실은, 구천의 주재자와 옥황상제는 다른 존재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좀 더 부연하자면, 우주의 운행을 상징하는 15는 15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지니고, 이 수리를 토대로 한 15신위 역시 15신위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즉 15신위가 15체제의 신명이 되기 위해서는, 진법주의 하감지위에 해당하는 3신위, 응감지위에 해당하는 7신위, 내대지위에 해당하는 4신위 각각이 별개의 독립된 존재들이어야 한다. 우주의 운행 원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우주의 운행도 담당하고 있는 15위의 신명들이 그 역할이나 권한을 혼선시키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15신위는 15개 각각의 신위 별로 독립성과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하나의 주문 내에서 여러 신위들을 한 분씩 차례로 부르고 있는데, 그 중 특정한 신위 한 분만 두 번 중복되게 호명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런 연유로 해서 ‘구천하감지위 옥황상제하감지위’라는 표현은, 하감지위에 해당하는 대상이 동일한 한 분이 아니라 ‘구천’과 ‘옥황상제’를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증산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우주의 최고신이자 구천의 통주자임을 밝히셨으며, 그러한 믿음은 대순진리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타 증산교단들 역시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증산께서는 받들어야 할 신위를 규정한 주문을 ‘진법(眞法)’이라는 이름을 붙여 남기셨으며[眞法呪], 바로 그 진법주에서 구천의 주재자와 옥황상제를 별도

의 존재로 설정하였다. 이런 점들은 증산을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의 주재자로 보아야 할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왜 증산께서는 진법주를 만드실 때 ‘구천하감지위’의 ‘구천’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밝혀놓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가능하겠으나, 적어도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는 증산께서 당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를 비장해야 하셨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후대에 하감의 주체인 구천의 주재자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심을 밝히신 분은 오직 도주뿐이었다. 따라서 도주께서는 증산께서 전하신 진법주를 완성시키신 분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사실은 도주께서 종통을 계승하신 분이라는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

2. 타 증산교단들의 옥황상제신앙과 진법주

증산께서 직접 전하신 진법주의 존재는, 증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하는 현상과 증산께서 구천의 통수자라는 믿음이 서로 부딪히게 만든다. 일례로, 보천교는 증산을 옥황상제라고 주장하면서도,⁶²⁾ 1921년 9월 24일 경남 함양 황석산에서 고천제(告天祭)를 지낼 때 진법주에 근거하여 ‘구천하감지위(九天下鑑之位)’,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鑑之位)’, ‘삼태칠성응감지위(三台七星應感之位)’를 각각 위패로 내세웠다.⁶³⁾ 당시 보천교는 구천과 옥황상제를 독립된 신위로 구분하면서, 구천을 우주의 체(體), 옥황상제를 우주의 용(用), 삼태칠성을 우주의 운행상(運行象: 행정기구)으로 규정했다. 보화교 역시 증산을 옥황상제로 믿는다. 하지만 보화교는 진법주를 인정하여 ‘구천상제하감지위 옥황상제하감지위’라고 함으로써 결국 옥황상제인 증산 외에 구천상제가 더 계신다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62) 이강오, 앞의 책, p.290; 홍범초, 『범증산교사』, p.137.

63) 보천교중앙총무원, 『보천교지』 (진주: 동양인쇄소, 1964), p.405; 이정립, 『증산교사』, p.84.

보화교나 보천교는 증산께서 옥황상제이지만 옥황상제 외에 또 다른 구천의 주재자가 더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결국 이 교단들은 증산께서 구천의 최고신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있었던) 셈이 된다. 그러나 그 교단들은 타 증산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증산께서 구천의 통수자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있었다). 이러한 모순은 증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하면서도 진법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실제 나타나는 종교 현상을 중시하는 종교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교의 교리나 신앙이 모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교리 체계가 일관적·논리적·합리적인지 아닌지 고민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교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넘겨버릴 수는 없다. 증산진법회의 배용덕은 진법주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증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편 적이 있으니,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教祖 甌山께서 公布하신 바 天界의 位階가 表示되어 있는 「眞法呪」 첫머리에 “九天下鑑之位” “玉皇上帝下鑑之位”라고 한 것을 본다. … 甌山敎에서 가장 重要한 呪文으로 認定되고 있는 「眞法呪」에 “九天下鑑之位” “玉皇上帝下鑑之位”라고 表現된 것을 보면 九天帝라는 呼稱은 成立될 수 없고 玉皇上帝가 九天에 계시다고 하면 論理에 合當한 것이다(九天帝라는 呼稱은 一旦 不合理하다 할 수밖에 없다).⁶⁵⁾

그는 진법주의 첫머리가 ‘구천하감지위 옥황상제하감지위’인 것이, 옥황상제께서 구천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단정한다. 그의 주장은, 전술한 대로 초기 보천교가 삼광영을 조성하면서 옥황상제인 증산이 구천의 중앙에서 사망과 상하를 통솔한다고 설명한 것과

64) 보화교에서 사용하는 진법주 전문은 다음과 같다. 九天帝下鑑之位 玉皇上帝下鑑之位 釋迦如來下鑑之位 直先祖下鑑之位 外先祖應感之位 妻先祖應感之位 妻外先祖應感之位 四時土王應感之位 四海龍王應感之位 五嶽山王應感之位 冥府十王應感之位 七星使者來待之位 左直使者來待之位 右直使者來待之位 冥府使者來待之位. 『대도진법』 (김제: 동도교 보화교회 출판부, 필사본, 1967), pp.61-62.

65) 배용덕·임영창, 『증산신학개론(중·하)』 (증산사상연구회, 1984), p.67.

동일하다. 일단 배용덕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천상제’라는 호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념 위에서 초기 보천교의 교의 체제를 그대로 선언하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구천하감지위’와 ‘옥황상제하감지위’라는 표현이 ‘옥황상제가 구천에 계시다고 하면 논리에 합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진법주는 ‘구천의 옥황상제 하감지위[九天玉皇上帝 下鑑之位 또는 九天之玉皇上帝 下鑑之位]’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도 인정하고 있듯이, 초기 진법주는 ‘구천도 하감지위’이고 ‘옥황상제도 하감지위’[九天下鑑之位 玉皇上帝 下鑑之位]이다. 따라서 배용덕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배용덕의 경우처럼, 초기 진법주에 대한 색다른 해석으로 증산이 옥황상제라는 신앙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증산을 옥황상제로 모시려고 한다면 초기 진법주를 부정하거나 혹은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은 증산의 원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

이처럼 진법주의 존재가 증산을 옥황상제로 믿게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타 증산교단들은 증산을 옥황상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산께서 당신 스스로를 옥황상제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⁶⁾ 하지만 여기에서 종도들 사이에 ‘내가 누구인줄만 알면 너희들이 반도통(半道通)을 하리라’는 증산의 말씀 또한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⁶⁷⁾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산께서 스스로를 옥황상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산께서는 “동학 신자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66) 『월간 천지공사』 72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5), pp.7-9.

67) 『월간 천지공사』 44, p.24 참조.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⁶⁸⁾고 하시면서, 당신을 미륵⁶⁹⁾, 대선생(代先生)⁷⁰⁾ 등의 용어로 설명하셨다. 이것은 당신께서 미륵이나 대선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었다. 단지 종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교 혹은 동학, 비결서 등에 기반하고 있던 당시 종도들의 지식을 고려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내리셨던 것이다.⁷¹⁾ 이런 맥락에서 증산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리라고 하시면서도 스스로를 옥황상제로 표현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당신께서 옥황상제임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존재를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민간에 최고신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옥황상제라는 신격을 활용하셨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 기술하겠지만, 민간에서 인기 높은 옥황상제는 신들의 위계로 볼 때 삼청(三清)을 주관하는 최고신 아래에서 동서남북을 각각 관장하는 천존들을 다스리는 천신(天神)일 뿐, 우주를 주재하는 최고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증산교단들이 진법주의 가르침과는 달리 증산을 옥황상제로 굳이 설명하겠다면, 그때의 옥황상제는 어떻게 해서 삼청을 뛰어넘는 최고신이 될 수 있는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옥황상제와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하는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타 증산교단들의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3. 전통 옥황상제 개념

이 절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옥황상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 작

68) 『전경』, 예시 79절.

69) 같은 책, 행록 2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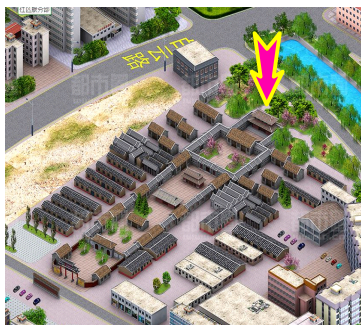
70) 같은 책, 행록 2장 16절, 권지 1장 11절.

71) 예를 들어 증산께서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해석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찬실(研鑿室)에서 작성한 「상제강세의 새로운 이해」,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1988), pp.26-27을 참조할 것.

업으로서, 세상에 이미 전해져오고 있던 옥황상제라는 신격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 볼 것이다.

흔히 옥황상제는 중국도교의 최고신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에서도 옥황상제를 최고신으로 신앙한다. 하지만 교리 측면에서 보면 옥황상제는 중국도교의 최고신이 아니다.⁷²⁾

예를 들어 현재 중국도교의 총본산인 북경 백운관(白雲觀)을 들여다보자. 이 도관(道觀)은 남북으로 약 270m, 동서로 155m 정도의 공간 안에 여러 건물들을 길서정연하게 담고 있는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핵심적인 건물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사어전(四御殿)·삼청각(三清閣)이다. 이 건물의 1층 사어전은 사어(四御)와 그 중심에 옥황상제를 봉안해 놓고 있다. 사어란 북방의 북극자미대제(北極紫微大帝: 모든 별들을 다스림), 남방의 남극장생대제(南極長生大帝: 萬靈을 다스림), 서방의 태극황천대제(太極皇天大帝: 萬神을 다스림), 동방의 동극청화대제(東極靑華大帝: 모든 생명체를 다스림)인 사극대제(四極大帝)를 의미하는데, 옥황상제는 중앙에서 이들을 통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층 삼청각은 옥청(玉淸)의 원시천존(元始天尊), 상청(上淸)의 태상도덕군(太上道德君),



<그림 4> 중국도교의 총본산인 북경 백운관에서 최고신을 모셔놓은 건물은 전체 지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다.(上: 출처는 바이두 맵) 그 건물의 1층이 사어전이며 2층이 삼청각이다.(下: 직접 촬영)

72) 김일권, 「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관념의 교섭 연구」, 『종교연구』 18 (1999), pp. 222-227; 김낙필, 「도교와 한국민속」, 『민속과 종교』 (서울: 민속원, 2003), p.92.

태청(太淸)의 태상노군(太上老君)이라는 삼청존신을 모시고 있다. 사어전 위에 삼청각이 얹혀있는 이 건물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옥황상제가 사어를 통솔하되 최고신의 아래에 있는 신, 즉 ‘만신지상(萬神之上) 삼청지하(三淸之下)’의 신이라는 것이다. 삼청존신은 중국도교의 최고신이므로 결국 옥황상제는 최고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옥황상제는 어떤 이유로 최고신으로 알려지게 되었는가? 6세기 초엽 도홍경(陶弘景, 456~536)이 『진령위업도(眞靈位業圖)』로써 잡다한 도교의 신들을 모아 순위를 정할 때 옥황상제는 서열 10위(또는 11위나 19위) 정도 밖에 안 되는 신이었다. 이러한 옥황상제가 순식간에 높은 신으로 추대되는 때는 북송 진종(眞宗, 968~1022)과 휘종(徽宗, 1082~1135)대의 일이다. 당시 북송은 거란족 요(遼)의 공격을 받아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고심하던 진종은 꿈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자신의 조상 조현량(趙玄朗)이 나타나 송이 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흥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었다고 하면서 옥황상제를 국가의 수호신으로 추대했다. 이로 부터 옥황상제는 도교의 최고신으로 숭상 받게 되었으며 진종의 후손인 휘종은 그러한 신앙을 완전히 확립시켰다.⁷³⁾

중국도교의 교학 체계에 이미 삼청존신이 최고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 옥황상제가 새로운 최고신으로 등장하자, 중국도교는 ‘삼청사어(三淸四御)’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분들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최고신인 삼청 존신의 아래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을 주관하는 천존들인 사어를 통솔하고 삼청의 명을 받아 집행하는 신이 바로 옥황상제라는 것이다.⁷⁴⁾

중국도교의 신관 체계에서 옥황상제는 삼청의 밑으로 확정되었지만,

73) 진기환, 『중국의 토속신과 그 신화』 (서울: 지영사, 1996), p.19, pp.76-77; 김일권, 앞의 글, pp.224-225; 앙리 마스페로, 『도교』, 신하령·김태완 역 (서울: 까치글방, 1999), pp.100-101; 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최준식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00), pp.269-270.

74) 李叔還, 『道敎大辭典』 (臺北: 巨流圖書公司, 1986), p.188; 김일권, 앞의 글, p.225.

중국 민간에서 삼청을 뛰어넘는 최고의 신이 옥황상제라고 믿는 현상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가 명대의 오승은(吳承恩, 1501~1582)이 소설 『서유기(西遊記)』를 쓰면서 옥황상제를 삼청의 존신까지 거느리는 절대적인 신으로 묘사했는데, 이 소설의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유행은 민간에서 옥황상제를 최고의 신으로 각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⁷⁵⁾

지금도 중국인들은 삼청을 모시는 삼청궁이나 삼청각보다 옥황상제를 모시는 전각을 더 많이 참배한다. 결국 중국도교도 이러한 현상을 무시할 수 없어 옥황상제를 삼청 존신 체계에 집어넣고 원시천존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간혹 있다.⁷⁶⁾

옥황상제가 최고신인 삼청 존신보다 더 친밀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삼청 존신이 무극·태극·음양을 상징하는 철학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옥황상제는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가정에 있는 조왕신이 그 집 식구들의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연말이 되면 각 개인별로 상세한 보고서 만들어 상급신에게 제출한다고 믿는데, 그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인간 개개인에게 상이나 벌을 내리는 존재가 옥황상제라고 본다.⁷⁷⁾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옥황상제는 삼청 존신보다 더 대중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옥황상제를 민간의 최고신으로 숭배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삼청사어라는 신관 체계 속에 존재하는 옥황상제는 최고신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해두어야 할 것은, 옥황상제가 태초부터 존재하는 하나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 지극한 선을 거듭 쌓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대만 내에는 옥황상제라는 자리가 다음과 같이 열여덟 번이나 계속 바뀌었다는 신앙이 있다.

75) 김일권, 같은 글, p.226.

76) 같은 글, p.226.

77) 같은 글, p.226.; 양리 마스페로, 앞의 책, pp.126-127; 마노 다카야, 『도교의 신들』, 이만옥 옮김 (서울: 들녘, 2001), pp.34-35.

- 제 1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종고황제(玄宗高上帝: 黃老)
- 제 2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원고상제(元元高上帝: 紫微帝君)
- 제 3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명고상제(玄明高上帝: 大寶教化聖主)
- 제 4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미고상제(玄微高上帝: 鴻鈞老祖)
- 제 5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환고상제(玄寰高上帝: 星化帝君)
- 제 6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중고상제(玄中高上帝: 氣原天尊)
- 제 7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리고상제(玄理高上帝: 光華聖主)
- 제 8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천고상제(玄天高上帝: 大羅祖師)
- 제 9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운고상제(玄運高上帝: 精一天師)
- 제10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화고상제(玄化高上帝: 延行祖師)
- 제11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음고상제(玄陰高上帝: 北華帝君)
- 제12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양고상제(玄陽高上帝: 廣度眞王)
- 제13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정고상제(玄正高上帝: 度化天尊)
- 제14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기고상제(玄氣高上帝: 伏魔祖祖)
- 제15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진고상제(玄震高上帝: 興儒天尊)
- 제16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창고상제(玄蒼高上帝: 救世天主)
- 제17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궁고상제(玄穹高上帝: 妙樂國王)
- 제18대 옥황대천존(玉皇大天尊) 현령고상제(玄靈高上帝: 關聖帝君)⁷⁸⁾

이에 따르면, 이전 옥황상제는 은퇴하고 현재의 옥황상제는 18대인 데 곧 관성제군(관우)이라고 한다. 이 신앙은 청나라 말기 사천성과 운남성 등지에서 활동했던 비밀 종교결사조직인 나교(羅教) 계통의 난당(鸞堂)이 유포시켰던 ‘옥황퇴은설(玉皇退隱說)’이다. 그 내용은 원래의 옥황상제가 임기가 다했으므로 물러나고, 여러 신선들과 부처들이 관성제군을 새로운 옥황상제로 추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중국종교사를 보면 관성제군은 송나라 이후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재물신으로 숭상되다가 후대로 갈수록 갖가지 종류의 액을 피하게 하며 다양한 복을 가져다주는 만능신(萬能神)으로 그 이미지를 확장시켜왔다.⁷⁹⁾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역할은

78) 『歷代玉皇大天尊寶典』(高雄: 合信印經處, 2007) 참조.

79) 김탁, 「한국 신종교의 관제 신앙」, 『신종교연구』 10 (2004), p.76.

옥황상제의 그것과 겹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관성제군신앙과 옥황상제 신앙이 습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림 14> 타이베이시 싱티엔궁에 가면 옥황상제의 황포를 입은 관성제군이 열렬히 숭배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上下: 직접 촬영)

현재 이 신앙의 전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유명한 도관 싱티엔궁[行天宮]이다. 필자는 몇 해 전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동이 막 뜬 아침 6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참배객들이 각자 마련한 제물을 붉은 색쟁반에 담아 들고 들어가 넓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옥황상제 황포를 입은 관성제군에게 절을 하며 소원을 빌고, 그 뒤에서 도사 복식을 한 사람들이 독경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의 옥황상제가 관성제군이라고 믿는 이 신앙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대만과 중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⁸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황상제는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 바뀔 수도 있는 하나의 ‘직책’이라는 신앙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 대순진리회의 옥황상제 개념과 양위상제관

80) <http://zh.wikipedia.org/wiki/%E7%8E%89%E7%9A%87%E4%B8%8A%E5%B8%9D> 참조.

이러한 중국도교의 옥황상제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대순진리회는 옥황상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순진리회는 옥황상제가 정산이라고 신앙한다. 정산께서는 증산의 뒤를 이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증산께서는 재세 시에 당신의 뒤를 이을 계승자가 있을 것임을 몇 차례 암시로써 전하신 바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증산께서 1894년 5월 주무시고 계시던 중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나도 후천 진인이라. 천지현기와 세계대세를 비밀히 의논할 일이 있노라.”고 아뢴 일이 있었는데,⁸¹⁾ 이 일화는 증산과 함께 후천을 여는 일을 따로 의논해야 하는 진인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된다.⁸²⁾ 실제 증산께서는 홀로 도통을 펼치고 후천을 여시지 않으시며 도통줄을 전해 준 진인이자 대두목이 더 있다는 사실을 종도들에게 알리셨다.⁸³⁾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뒤를 이은 진인이자 대두목이 도주이신 정산이라고 믿는데, 도전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훈시하셨다.

도(道)란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에 의해 상제님께서 삼계대권을 가지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멸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구하시려고 천지공사를 행하셨으며, 그 행하신 바를 계시로 도주님께 전하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전경』에도 상제님께서 홀로 이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의 연원(淵源)은 구천상제님의 계시(봉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연원은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주님께서 십오 세시 진주(眞主)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만주 봉천에서 이십삼 세시 득도하심은 태을주로 본령합리(本領合

81) 『전경』, 행록 1장 22절.

82) 조태룡, 「대순진리의 종지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6 (1998), pp.351-352 참조.

83) 『전경』, 교운 1장 41절,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理)를 이루신 것이며, 『전경』에 ‘12월 26일 재생신(再生身)’이라 하신 것은 12월 4일로 1년 윤회의 만도(滿度)를 채우실 도주님의 탄강을 뜻하심입니다. 이것을 여합부절(如合符節)한 천부적 종통 계승이라고 합니다. 진표율사가 금산사의 용추(용소)를 솟으로 메우고 술을 올려놓은 위에 미륵불을 봉안한 것은 증산(甌山)·정산(鼎山), 양산(兩山)의 진리를 암시하여 도의 근원을 밝혀 놓은 것이며, 상제님께서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고 하심도 미륵불과 술의 양산의 이치를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⁸⁴⁾

그렇다면 구천의 상제[九天大元造化主神]께서 증산의 몸으로 오셨듯이 천상의 옥황상제께서도 정산의 몸으로 오신 것인가? 아니면 정산께서 옥황상제라는 자리에 ‘새로이’ 오르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확정하기 어렵다. 대순진리회 도인들의 말을 참고해보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사이에 봉축주가 “무극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태극도주 조정산 대운대사 소원성취케 하옵소서”에서 “무극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조성옥황상제 소원성취케 하옵소서”로 변경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정산께서 옥황상제로 새로 등극하신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와 달리 옥황상제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 것이라고 믿기도 하는 것 같다.

대순진리회의 옥황상제는 어떤 위상을 갖는 분인지, 또 구천상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조명하기 위해서, 우선 임영창이 다음의 도표로써 자신의 연구 결과를 요약시킨 것부터 검토해보자. 이 도표의 핵심은 구천상제와 옥황상제를 각각 무극주(신)와 태극주(신), 체신(體神)과 용신(用神)으로 구분한 것이다.⁸⁵⁾

84) 『대순회보』 5, p.2.

85) 임영창, 앞의 글, p.641.

<표 2> 임영창이 제시한 양위상제관

兩位上帝

九 天 上 帝	姜聖上帝 (人格位号)	玉 皇 上 帝	趙聖上帝 (人格位号)
	甌山上帝 (人格位号)		鼎山上帝 (人格位号)
	九天上帝 (神格位号)		玉皇上帝 (神格位号)
	无極主(神) (神格位号)		太極主(神) (神格位号)
	體神 (體用別位格)		用神 (體用別位格)

첫째, 임영창은 이 도표에서 구천상제를 무극주로, 옥황상제를 태극주로 대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도주와 도전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봉축주에서 말하는 무극신(無極神)이 구천상제라는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고, 또한 도주께서 1956년에 발행토록 하신 『태극도통감』에 따르면 구천상제께서는 태극을 관령 주재하시는 천존이시다.⁸⁶⁾ 따라서 대순사상의 틀에서는 ‘구천상제가 무극주, 옥황상제가 태극주’일 수가 없다. 무극주니, 태극주니 하는 표현은 1980년대 후반 태극도장에 남은 사람들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교리들에서 나온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⁸⁷⁾

둘째, 임영창은 구천상제와 옥황상제를 체(體)와 용(用)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즉 그는 체와 용을 사물의 본체와 작용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면서, 증산께서 도를 펴기 때문에 체신(體神), 정산께서 그 교훈을 받아 도(道)와 도단(道團)을 개창하였으니 용신(用神)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점은 ‘구천’과 ‘옥황상제’를 체와 용으로 이해했던 초기 보천교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증산께서 도를 펴시고 정산께서 도와 도단을 개창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대순진리회의 상제관에 체용개념을 적용

86)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p.5, “惟我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管領主宰 太極之天尊이시라.”

87)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 (I)」, pp.128-130 참조.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체용이론은 불교와 성리학에서 정립된 철학 개념으로서, 체는 형이상의 본체, 용은 형이하의 작용 및 현상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응용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체와 용이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계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합일적 존재라는 점, 체는 미발(未發)로서 드러나지 않음을 그 속성으로 하고 용은 드러남을 그 속성으로 한다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체용이론의 핵심으로 인정받아왔다.

대순진리회의 관점에서 보면, 구천상제께서는 인신강세(人身降世)를 기점으로 감추어진 신이었다가 드러나는 신으로 변모한 분이시고, 진법주의 ‘구천’도 도주에 의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그 베일이 벗겨진 상태이다.⁸⁸⁾ 만약 구천상제께서 인신강세를 하지 않고 천상에서 계시만 계속 내리셨다면 또 모르되, 구천상제와 옥황상제께서 모두 인세에 나투셨던 분들이고 드러나는 신이라면, ‘감춤 vs 드러냄’으로 대비되는 체용의 관계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구천상제와 옥황상제께서는 개념적으로는 종통이라는 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인 분들이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오히려 이것은 개념적으로만 분리될 뿐 실제적으로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체용이론과 정반대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옥황상제의 위상과 양위상제관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끄집어내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옥황상제께서는 치성과 기도·공경의 대상인 ‘상제’로서, 구천상제와 동일하게 4회의 배례를 받는다. 순서는 구천상제께 드리는 4배 다음이다. 15신위에서 두 분 상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3배 또는 2배, 읊(揖)을 받는다. 물론 같은 4배이지만 구천상제께서는 상악천권(上握天權) 하습지기(下襲地氣) 방식으로 4배를[法拜], 옥황상제께서는 평배(平拜)로 4배를 받는다. 따라서 같은 4배라고 하더라도 내용상 차이

88) 차선근, 같은 글, pp.137-140 참조.

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영대에 봉안된 15신위의 모습을 살펴보면 구천상제의 진영이 정중앙에 있으며 크기가 가장 크다. 옥황상제는 구천상제 옆에 자리하며, 그 진영은 구천상제의 그것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 본부도장 영대 건물인 본전의 2층은 봉심전이고 3층은 수강전인데,⁸⁹⁾ 여기에는 구천상제의 진영만 모셔져 있을 뿐 옥황상제를 비롯한 다른 신명들은 봉안되어 있지 않다.

셋째, 『도헌』 제3조에는 “本會의 信仰對象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姜聖上帝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⁹⁰⁾ 이 말은 양위상제 즉 상제가 구천상제와 옥황상제로서 두 분이시지만, 최고신은 구천상제 한 분이라는 점을 뜻하고 있다. 만약 최고신이 두 분이라면, 상기 『도헌』의 서술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대순진리회 최고신은 무극과 태극, 아울러 음양을 모두 대표하고 통솔·주재하는 분이다. 최고신은 무극이나 태극 하나만을 주재하거나, 혹은 전술한 어느 증산교단의 경우처럼 음양 가운데 양(陽)만을 대표하는 분, 또는 천지인 삼계 가운데 어느 한 계(界)만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 이 모두를 한꺼번에 관장하는 분이시다. 아울러 인간의 복록까지도 관장하시고 있다.⁹¹⁾ 양위상제 가운데 삼라만상에 대한 주권을 지닌 분은 구천상제 한 분이신 것이다.

다섯째, 도주께서는 1927년에 선포하신 「포유문(布諭文)」에서 “다행히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도가 있으니, 나의 심기(心氣)를 바르게 하고, 나의 의리를 세우고, 나의 심령을 구하여, 상제의 뜻에 맡길 뿐이리라. **한없이 넓은 (구천)상제께서 위에 계시고, 가없는 도주께서 명을 받드시어, 밝고 밝은 하늘의 법칙은 사사로움이 없이 공명**

89)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본전 건물의 1층은 대순성전, 2층은 봉심전, 3층은 수강전, 4층은 영대이다. 『대순진리회요람』 (1969), p.25.

90) 『도헌』 (1985) 참조.

91) 『전경』, 교범 2장 4절,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

정대하며 헤아릴 수 없는 극락 오만 년 청화세상으로 인도하였으니 ...”⁹²⁾라고 하셨고, 또 “(구천)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⁹³⁾고 말씀하셨다.

이상 몇 가지로 볼 때, 상제께서 구천상제와 옥황상제 두 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분들은 하나의 동등한 지평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신앙의 대상이 구천상제라든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구천상제라든가, 도주께서 구천상제의 명을 받드신다든가 하는 표현들도 그렇지만, 실제 의례에서 구천상제와 옥황상제께 동시에 배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천상제께 먼저 배례를 드리고 옥황상제께는 그 다음에 드린다는 것이나, 영대 원위에 봉안된 구천상제 진영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본전 건물의 2층과 3층에 구천상제만 봉안되어 있다는 사실은 구천상제께서 옥황상제보다 더 먼저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옥황상제께서는 구천상제 다음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순진리회 옥황상제의 위상은 어느 정도 조명될 수 있지만, 옥황상제의 권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옥황상제이신 정산께서 재세 시에 하신 일을 토대로 그것을 유추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한다. 정산께서 옥황상제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런 방법으로 옥황상제의 권능과 역할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산께서 인간계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옥황상제 자리에 새로이 임어하신 것이라면 이런 접근 방법이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대순진리회 교리체계에서는 신명의 일과 인간의 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옥황상제의 권능과 역할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92) 같은 책, 교운 2장 41절, “幸於此世 有無量之大道 正吾之心氣 立吾之義理 求吾之心靈 任上帝之任意 洋洋上帝在上 浩浩道主奉命 明明度數無私至公 引導乎無量極樂 五萬年清華之世...”

93) 같은 책, 교운 2장 48절.

정산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산께서 하신 성업(聖業)을 이어받아 벌여야 하셨던 일에 대해서, 『대순진리회요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강증산(姜甌山) 성사(聖師)께서는 이조말엽(李朝末葉)에 극도(極度)로 악화(惡化)한 종교적(宗教的)·정치적(政治的)·사회적(社會的) 도탄기(塗炭期)를 당(當)하여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巡眞理)에 의(依)한 종교적(宗教的) 법리(法理)로 인간(人間)을 개조(改造)하면 정치적(政治的) 보국(輔國) 안민(安民)과 사회적(社會的) 지상천국(地上天國)이 자연(自然)히 실현(實現)되어 창생(蒼生)을 구제(救濟)할 수 있다는 전대(前代) 미증유(未曾有)의 위대(偉大)한 진리(眞理)를 선포(宣布)하시며 이에 수반(隨伴)된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시다.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께서는 강증산(姜甌山) 상제(上帝)의 대순진리(大巡眞理)에 감오득도(感悟得道)하시고 종통계승(宗統繼承)의 계시(啓示)를 받으시다. … 전북(全北) 구태인(舊泰仁) 도창현(道昌峴)에 도장(道場)을 건설(建設)하시고 종단(宗團) 무극도(無極道)를 창도(創道)하시다. … 도인(道人)의 각종(各種) 수도방법(修道方法)과 의식행사(儀式行事) 및 준칙(遵則)등을 설법(設法) 시행(施行)하시다. … 도(道)의 체계(體系)와 임원(任員)을 개편(改編)하시다.⁹⁴⁾

이에 따르면, 증산께서는 해원상생 무극대도의 위대한 진리를 인세에 선포하시고 그에 따라 삼계를 개혁시키는 천지공사를 시행하신 분이며, 정산께서는 증산의 뜻과 계획을 이어받아 실제로 인간들이 그것을 구현해 낼 수 있는 터전인 종단을 창설하시고 구체적인 수도 방법 [道=眞法]을 만드신[創] 분이라고 한다. 정산께서 1958년에 화천하실 때 “오십년공부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금지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라고 하신 데에서 알 수 있듯이,⁹⁵⁾ 대순진리회는 정산께서 인간계에서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총 50년이 걸렸다고 본

94) 『대순진리회요람』, pp.10-13.

95) 『전경』, 교운 2장 66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산계서는 ‘도주(道主)’이시며 대순진리회의 창도주(創道主)로 인식되는데,⁹⁶⁾ 이 표현들은 증산계서 전하신 추상적인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법[道]을 만든 주인[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진리회가 증산계서 전하신 유업을 유지(遺志), 정산계서 전하신 유업을 유법(遺法)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결국 정산(옥황상제)계서 인간계에서 하신 일이란, 50년 동안 증산(구천상제)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유법을 만든 것이라고 정리된다. 이를 신명계에 투영시켜 본다면 옥황상제는 구천상제로부터 명을 받아 보다 세부적인 일을 시행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때의 옥황상제는 최고신의 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권한과 그 아래 모든 신명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들이 대순진리회의 옥황상제 개념과 양위상제관에 대한 하나의 시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해명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다. 이를테면, 교리적으로 볼 때 중국도교의 옥황상제는 최고신 밑에서 사어를 통솔하며 최고신의 뜻을 이어받아 실제적인 명을 집행하는 존재였는데, 이러한 관념이 대순진리회 옥황상제 관념과 얼마나 유사성을 갖는지 하는 문제이다. 표면적으로는 닮아있는 듯 하지만, 중국의 옥황상제는 인간의 복록을 주관하는 존재였고, 대순진리회의 옥황상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옥황상제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신명계에서의 역할이나 권한 등이 중국도교의 경우와 대순진리회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꽤나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시간을 갖고 천천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양위상제’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분 상제께서 동등하지 않음에도 ‘양위상제’라

96) 『도헌』 제2조, “본회(本會)의 창도주(創道主)는 조정산성사(趙鼎山聖師)이다.”

는 용어는 동등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회 내부에서 ‘양위상제’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잠깐 짚어보자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의 부여 없이 단지 표현의 편리성, 즉 대순진리회의 상제가 구천‘상제’와 옥황‘상제’이시니 두 분 상제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두 분 상제’, 곧 양위상제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양위상제라는 표현의 배경에 종통의 중요성이 깔려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산(구천상제)께서 천지대도를 선포하시고 공사를 시행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이루어 낼 분이 없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산(옥황상제)께서는 종통을 세우시고 지상선경으로 나아갈 길을 창도하셨으니, 이는 곧 진멸의 위기에 처한 우주를 살리기 위해 구천상제께서 세우신 방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은 대위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의 성업이 지니는 가치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양위상제라는 표현 속에는 종통의 중요성이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양위상제라는 용어 자체가, 증산께서는 당연히 상제이시지만 도주이신 정산께서도 (옥황)상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IV. 달는 글

사실상 이 글은 특정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명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만 잔뜩 꺼내 쌓아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대순진리회 상제관의 확립을 위해 어떤 문제에 더 천착해야 하는지, 그 나름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게다가 이 글은 타 증산교단들과는 구별되는 대순진리회 상제관의 고유성을 일정 부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1960년대에 서구 종교학은 같은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분파가 있으며, 그 분파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많은 종교 현상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경고를 내어놓고 있다.⁹⁷⁾ 하지만 여전히 한국 학계는 여러 증산교단들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⁹⁸⁾ 타 증산교단들의 최고신 규정이 대순진리회의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이 글은 대순진리회와 타 증산교단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할 하나의 당위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종단 내에 15신위와 진법주, 신앙 대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 글을 먼저 읽어준 교무부의 몇몇 연구위원들조차 ‘양위상제’라는 표현 자체부터가 잘못된 용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고, 15신위와 진법주에 대한 견해도 각자가 달랐다. 그러한 의견들은 각자의 깨달음과 믿음에 바탕을 둔 공고한 것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몇몇 임원들은 신앙의 대상을 구천상제 한 분으로 인정하면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주와 도전까지도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⁹⁹⁾ 필자 역시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와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자 신앙 대상은 구천상제 한 분이시나 실제 공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구천상제 한 분이 아니다. 실제 치성과 배례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는 15신위 모두를 공경한다. 아울러 상제로부터 내려 온 종통이 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도전 역시 공경의 대상임을 알려준다. 대순진리회가 유일신만을 강

97) 오경남, 『종교사회학』 (파주: 서광사, 2006), p.111.

98) 차선근,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참조.

99) 조태룡, 앞의 글, p.350 참조.

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대상과 공경의 대상을 정립하고 그 개념을 밝히는 작업 역시 앞에 놓여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다.

무릇 글을 쓰는 자는 그 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이 글에 대한 모든 비난은 필자가 다 감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단 내에 상제관에 대한 정립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상제관에 대한 상당한 편수의 글들이 발표되었으나 필자가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 (I)」에서 지적하였듯이, 그 연구들이 문제의식과 깊이에서 실제적이지 못했던 탓도 있다고 본다. 지난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 (I)」과 더불어 이 글이, 향후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에 대한 종교지(宗敎誌, religiography) 구축으로 이어지고, 보다 진척된 상제관 연구에 활용되어, 대순종학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비난을 감수할 가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난과 비방이 아닌, 비평과 비판의 시각에서 이 글이 읽혀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글이 길었던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 제시된 논점들을 요약해보는 것으로 글을 단고자 한다.

첫째, 진법주와 그에 바탕한 15신위는 대순진리회의 상제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대순진리회를 제외한 타 증산교단들은 증산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있어서 진법주 15신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은 대순진리회만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진법주의 전문을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16위 즉 '15신위+진인(도전)'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은 영대에 15신위가, 영대 옆 내정에 도전께서 계시는 대순진리회 도장 건물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셋째, 15신위는 최고신과 못 신명들을 하나의 단일 공간에 봉안시키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불교 사찰이나 중국도교 도관에는 각 신

명들이 독립된 전각에 각기 모셔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대순진리회의 영대는 못 신명들이 최고신의 주재 하에 하나의 공간 속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회 최고신이 못 신명들을 통솔하고 있으며, 그 주재 하에서 각 신명들은 자신의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체제가 15신위이다.

넷째, 15신위의 바탕이 되는 숫자 15는 우주의 진리와 운행 법칙을 상징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 신단은 우주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최고신이 그 중앙에 자리한다는 상제관 역시 우주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15신위는 대순진리회 최고신이 옥황상제나 서가여래, 관성제군, 산·바다·계절[四時]·칠성 같은 기능신들, 그리고 조상신들과 각종 사자들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신들은 도교나 불교, 민간 신앙 등 여러 전통의 종교문화에서 등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5신위는 대순진리회 상제관이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어우러진 토양 위에서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타 증산교단들은 증산을 옥황상제로 믿는 경향이 강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증산을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상제로 신앙한다. 이것은 증산계서 구천의 주재자라는 사실, 그리고 증산계서 전하신 진법주에 구천의 주재자와 옥황상제가 다른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일곱째, 대순진리회의 상제는 구천상제와 옥황상제라는 양위(兩位)의 형태로 나타나니, 이것을 양위상제라고 표현한다. 비록 상제가 두 분이라고는 하지만, 신앙의 대상은 최고신인 구천상제이시고, 옥황상제께서는 구천상제의 뜻을 이어받아 실제적인 법[眞法]을 펼치신 분이므로 이해된다. 즉 양위상제라는 용어는 두 분 상제가 하나의 동일한 지평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양위상제는 두 분 상제를 표현하는 편리성과 더불어 종통의 중요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종교 용어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요람』, 1969.
- 『대도진법』, 김제: 동도교 보화교회 출판부, 필사본, 1967.
- 『대순전경』 6판, 김제: 동도교 증산교회 본부, 1965.
- 『대순지침』, 1984.
- 『대순회보』 3, 1985.
- 『대순회보』 5, 1986.
- 『대순회보』 35, 1993.
- 『대순회보』 100, 2009.
- 『도현』, 1985.
- 보천교중앙총무원, 『보천교지』, 진주: 동양인쇄소, 1964.
- 『歷代玉皇大天尊寶典』, 高雄: 合信印經處, 2007.
- 『玉樞經』, 鷄龍山板本, 1884.
- 『玉樞經』, 普賢寺 板本, 1733.
- 『玉樞經』, 安心寺 板本, 1570.
- 『월간 천지공사』 3,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 『월간 천지공사』 6,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 『월간 천지공사』 16,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 『월간 천지공사』 31,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1.
- 『월간 천지공사』 41,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2.
- 『월간 천지공사』 44,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2.
- 『월간 천지공사』 45,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2.
- 『월간 천지공사』 48,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2.
- 『월간 천지공사』 49,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3.
- 『월간 천지공사』 72,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5.
- 『전경』, 1974.
- 『주문』, 간행년 미상.

-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 고민환, 『仙政圓經』, 필사본, 발행년도 미상.
- 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최준식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00.
- 구중희, 『옥추경연구』, 서울: 동문선, 2006.
- 김낙필, 「도교와 한국민속」, 『민속과 종교』, 서울: 민속원, 2003.
- 김일권, 「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관념의 교섭 연구」, 『종교연구』 18, 1999.
- 김 탁, 「한국 신종교의 관제 신앙」, 『신종교연구』 10, 2004.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찬실, 「상제강세의 새로운 이해」,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1988.
-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1.
- 마노 다카야, 『도교의 신들』, 이만옥 옮김, 서울: 들녘, 2001.
- 문화공보부,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1970.
- 배용덕·임영창, 『증산신학개론(중·하)』, 증산사상진흥회, 1984.
- 신상미, 「상제님의 성골(聖骨)」, 『대순회보』 139, 2012.
- 안경진, 『관통 증산도 1』, 서울: 대원출판사, 1993.
- 안후상, 「보천교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앙리 마스페로, 『도교』, 신하령·김태완 역, 서울: 까치글방, 1999.
- 오경남, 『종교사회학』, 과주: 서광사, 2006.
-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 신종교 실태 조사 보고서』, 1997.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연구』 8, 1999.
-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서울: 대흥기획, 1993.
-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 _____, 『증산교요령』, 김제: 증산교본부, 1990.
-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교(二)」, 『대순사상논총』 2, 1997 .
- 조태룡, 「대순진리의 중지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6, 1998.
- 진기환, 『중국의 토속신과 그 신화』, 서울: 지영사, 1996.

- 차선근, 「조석(潮汐)의 이해」, 『상생의 길』 창간호, 2004.
- _____,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I)」, 『대순사상논총』 21, 2013.
- _____,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 민족종교 총람』, 1992.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제2권, 1994.
- 한국종교연구회, 『한국 신종교 조사 연구 보고서』, 1996.
-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 창문각, 1982.
- _____, 『범증산교사』,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京城: 朝鮮興文會, 1922.
- 尹翠琪, 「道教版畫研究: 大英圖書館藏《玉樞寶經》四註本之年代及插圖考」, 『道教研究學報』 第二期, 宗教·歷史與社會, 2010.
- Gemot Prunner, “The Birthday of God: A Sacrificial Service of Chŭngsan'gyo”, *Korea Journal*, Vol.16 No.3, 1976.

▪Abstra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Outlook
on the Highest Ruling Entity in Daesoonjinrihoe (II)**
- Focusing on 15 Godship and Yang-wui Sangje
(Sangje in two Godship) -

Seon-Keun Cha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This article as an attempt to analyze Jin-beop-joo(眞法呪, incantation of true law) and the view of Yang-wui Sangje(兩位上帝, Sangje in two Godship) corresponds to the second preliminary work prior to the research on the view of Sangje in Daesoonjinrihoe. The poi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Jin-beop-joo and 15 Godship(神位) based hereupon are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comprising the view of Sangje in Daesoonjinrihoe. Since the other Jeungsan line religious orders except Daesoonjinrihoe does not use 15 Godship in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Jeungsan, this fact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Daesoonjinrihoe.

Second, 15 Godship is the important installation to assemble Sangje and the other gods in the same place. In Buddhism temples and China-Taoism temples, the gods each are placed in a separate

palace. Whereas Sangje and the gods are concentrated in the same place, Yound-Dae(靈臺) which is the shrine of Daesoonjinrihoe. This fact shows Sangje takes the reins to the gods visually. 15 Godship facilitates that system.

Third, the number 15 of 15 Godship symbolizes the natural laws of the cosmos. Thus the shrine of Daesoonjinrihoe implies the law of universe emblematically.

Forth, 15 Godship shows that the Highest God in Daesoonjinrihoe ar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functional gods ruling over nature like mountain, sea, season, the Great Dipper, and Taoistic or Buddhistic gods like Ok-hwang Sangje(玉皇上帝, The Great Jade Emperor), Seoga-Yeoraе(釋迦如來, Tathāgata Buddha), Kwan-seong-Jegoon(關聖帝君, Holy god Guan Yu), along with various envoys and ancestral gods. Besid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15 Godship consists of the Eastern deities, it verifies the view of Sangje in Daesoonjinrihoe is built in the Eastern religions.

Fifth, whereas the other Jeungsan line religious orders have a tendency of understanding Jeungsan as Ok-hwang Sangje, Daesoonjinrihoe worships Jeungsan as Gu-cheon Sangje(九天上帝), not as Ok-hwang Sangje. This accords with the following fact; Jeungsan is the highest ruling entity in Gu-cheon, whereas in Jinbeonju, which was handed down from Jeungsan, the highest ruling entity in Gu-cheon is expressed as a different being from Ok-hwang Sangje.

Sixth, Daesoonjinrihoe understands Sangje as the form of two Godship, Yang-wui Sangje, which are Gu-cheon Sangje and Ok-hwang Sangje. Judging from the form of salutation, the status of these two Sangjes are the same. Yet, the object of belief is Gu-cheon

Sangje as the highest God, while Ok-hwang Sangje is stipulated as the one who has wielded a true law succeeding to the Gu-cheon Sangje's will. The religious term of Yang-wui Sangje don't imply meaning Gu-cheon Sangje and Ok-hwang Sangje are the same rank. Yang-wui Sangje is the term expresses Sangje in two Godship and involves the orthodox heritage of Daesoonjinrihoe.

Along wi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Outlook on the Highest Ruling Entity in Daesoonjinrihoe* (I), this article is written, while giving a thought to construct the religiography on the highest God in Daesoonjinrihoe. I hope this article accompanied with the previous one, can be contributed to the fertilization of the soil in the field of Daesoon religious studies.

Key words : Jin-beop-joo(眞法呪, incantation of true law), Young-dae (靈臺), 15 Godship, Gu-cheon Sangje(The Lord of the Ninth Heaven), Ok-hwang Sangje(The Great Jade Emperor), Yang-wui Sangje(Sangje in two Godship), Sam-cheong-sa-eo(三清四御), hypothesis that The Great Jade Emperor is retired(玉皇退隱說), *Okchu-kyeong* (玉樞經), 48 Jang(將, General Gods)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7일~1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7월 27일